목어

한탕주의

요즘 사회, 경제가 어려워지니 한탕주의가 난무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도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정상적 도덕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챙겨왔더라면 사회가 이렇게 혼란과 불균형으로 혼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재계 고위층들은 피땀없이 부를 누리게 됨에 따라 국민경제가 곤두박질쳐 서민이나 노동계층의 불만 불신이 팽배하면서 도박과 도둑이 난무하는 한탕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다.

인간의 심리 한 구석에는 누구나 다소의 탐욕심이 잠재해 있다. 어느 계기가 되고 유혹의 전율이 닿게 되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국민소득 만불시대가 IMF라는 정치 장난과 기업의 횡포에 무너지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노숙자와 걸식아동 등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면서 굶고 있는데, 국민들도 모르는 '공적자금'이라는 국가예산보다 많은 액수가 어느 누구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고, 불법대출과 은행종사자의 횡령과 기업의 부도와 부실경영으로 주가마저 급락하니 국가경제가 말이 아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국가의 통치자나 정부, 국회, 기업가, 국민은 소극적 떠넘김보다는 자성의 고요한 뉘우침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헐떡거리는 욕망을 쉬게 하고 괴로운 번민에서 해탈하여 고비를 훌쩍 뛰어넘어야 한다.

〈벽지불인연경〉에 이런 말이 있다.

"까시국의 왕이 신하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먹는 것은 한 가지 음식에 지나지 않고, 내가 입는 것은 한 벌의 옷에 지나지 않고, 내가 앉고 눕는 방도 내 몸을 들일 수 있으면 될 뿐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어찌 과다한 욕심을 내어 만족할 줄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옷과 집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탐욕과 사행심을 버리고 한탕주의로써 금방 무언가를 거머쥐려는 성급한 생각과 행동일랑 한순간 멈춰버리자. 무작정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땀을 흘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흐르는 물을 역류하지 말고 순류하며 사는 지혜를 바랄 뿐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120평 법당에 겨우 10여명 참선법회

기획연재 신도시 포교

①부처님 만나기 힘들어요
❷중산층 포교거점인데…
③누가 어떻게 해야하나

신도 적고 재정 빈곤 문닫는 포교당도

11일 토요일 오후 4시 분당 A사찰의 참선법회시간. 120평 규모의 법당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고작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평일 법회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8년의 짧지 않은 역사와 편리한 현대식 내부시설을 갖춘 법당이 무색할 정도로 신도가 적다. 이렇게 신도가 한정되다보니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신도시 대부분의 사찰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동의 대원포교당 주지 현성 스님은 "신도시 포교당은 대부분 상가건물에 자리잡고 있어 빌딩 관리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을 합하면 보통 한달 운영비가 3백만원이 넘어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큰스님 법회나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려 해도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아파트 단지 위쪽 산등성이에 자리잡은 산본의 B사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회나 기도를 도맡아 할 스님이 없고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 탓에 신도들도 많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정난으로 사찰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등산로를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사찰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나눠주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예 문을 닫아 버린 경우도 있다. 중동의 마하사와 부산의 신도시 해운대에 있는 대승프라자 건물에 문을 열었던 한 포교당은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포교에 나선지 3년만에 문을 닫았다. 초창기 이 포교당 주지 스님은 각 가정을 방문하며 포교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중산층의 포교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포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재정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교구본사급 사찰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유지해 가고 있지만 개인의 원력으로 세운 포교당들은 한달 한달을 살아가기조차 버거운 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포교에 임하지만 1년도 채 못돼 지친다는 게 신도시 지역 스님들의 이야기다.

교리공부 체계화 등 포교 프로 절대 부족

또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도들이 교리 공부에 대한 열의는 타 지역보다 강한 편이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거나 조직적으로 이끌어줄 스님과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일산의 C사찰에 다니는 김현성씨(42)는 "교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도 주지 스님 이외엔 스님이 없어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스님들에게 신행 및 인생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주하는 스님이 없어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든다"고 볼멘 소리를 낸다.

신도시 사찰이 안고 있는 또 한가지 문제는 그냥 앉아서 오는 신도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포교 태도다. 독거노인이나 지역내 소외계층에게는 봉사활동으로, 중산층들에게는 장례식과 결혼식 등의 관혼상제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교회에 비해 포교 전략도 뒤떨어진다.

이외에도 신도시 포교당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곳으로 이사온 기존 불자들 자신이 예전에 다니던 사찰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새로운 불자나 신도를 만들고 교육하는 투자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또 도심 속에 묻혀 있는 포교당을 오기보다는 주말에 가족 나들이 겸 산사 분위기가 나는 사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포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명우·김재경·김주일 기자
(mwhan@buddhapia.com)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종책 발표문

23일 선암사에서 열리는 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 선거에는 현 총무원장 인곡스님, 재단법인 태고원 이사장 운산스님, 성주암 회주 종연스님 이렇게 세 스님이 출마한다. 인곡스님은 14일 오후 태고종 총무원, 운산스님은 같은 날 오후 2시 송현클럽에서 열린 종책토론회에서, 종연스님은 13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종책을 발표했다. 세 후보의 종책을 요약했다.

"불합리 제도 개선"

인곡 스님

△종단안정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어온 그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종헌종법상의 비현실적이고 미비한 점(사정원법, 상벌법, 종단공유사찰관리법, 법인법, 각종 선거법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한다.

△직·공영사찰의 운영체계를 정상화 또는 강화해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종단사찰로서의 모범사찰이 되도록 한다.

△종단교육기관을 보다 활성화, 내실을 기하고 도제양성에 주력한다. 선암사 불교전문강원을 승가대학으로 확대개편하고 전국에 3개 이상의 전문강원을 증설한다.

△종책과 종무를 항시 공개, 투명한 종무행정을 실시하고, 중앙종회를 통해 각급 종무기관과 부서업무에 감사제도를 확립시켜 재정안정을 기한다.

△선암사·태고사를 성역화, 수도정진하는 중심도량으로 만든다.

△분원제도를 부활, 종무원을 활성화시켜 종단 중요 교구로 정착시키며 종무행정을 지방교구에 대폭 이관한다.

△인천 용궁사에는 현대적인 불교수행·포교도량을 건립, 전불자들이 활용토록 한다.

△북한불교와의 교류를 확대 증진시키고 통일 이후의 불교에 대비한다.

이력: 1934년 生. 52년 월성화상을 은사로 득도. 현재 태고종 총무원장, 선암사 주지, (사)한국불교 태고종중앙회 이사장.

"종회 양원제 도입"

운산 스님

△중앙종회를 상하 양원제로 하여 종단발전에 기여한 스님을 상원으로 하고 젊은 스님들을 하원으로 하여 종단 참여를 통한 화합을 도모한다.

△각 시도교구 종무원의 행정을 강화한다. 현재의 총무원 업무중 사찰 등록, 승적, 제 증명 발급 등 사찰의 민원성 업무를 모두 시 도 교구 종무원에 이관하며 교구종무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고 종단이 자생적으로 기금을 조성,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생산적으로 종단재정의 안정을 확보한다.

△선암사주지 등 운영권을 선암사 재적승에게 환원시키고 총림을 활성화 한다.

△총무원장 단임제를 정착시킨다.

△동방대학을 대학원대학으로 종도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킨다.

△종도의 대화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사찰등록, 사찰주지, 교임임명, 승적 입적, 법계, 포상, 징계, 사면, 과거 태고종을 탈종한 사찰 등)를 강구, 종도의 총의로 시행한다.

△우수 승려 및 포교사 확보를 위해 승려의 득도제도, 교육제도 등을 전통과 진보를 조화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비, 태고종의 대 사회적 위상을 고양시킨다.

이력: 1942년 生. 59년 용봉화상을 은사로 득도. 현재 월간 〈불교〉 사장, 천중사 주지, (재)한국불교 태고원 이사장.

"지역 종무원 활성"

종연 스님

△참신하고 공심있는 인사를 중용, 담당부장 책임제를 도입하고 총무원 실무의 직접적인 부분은 국장이 추진하도록 한다.

△지방자치체제의 균형을 맞춰 각 지방교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종무원을 활성화,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적정규모의 예산을 배정한다.

△재정확보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재원을 본인이 마련하겠다.

△총무원과 종회, 사정원이 명실상부하게 3권이 분립,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중앙종회의 사무를 총무원 직원겸임을 지양, 법륜사에 종회사무국을 설치한다.

△동방불교대학의 정식인가와 설립을 추진하며 인천 용궁사 부지 4만평을 활용, 동방불교대학을 세우겠다.

△수서지구 불국사 소유인 일원동 1500평 부지에 총무원사를 신축 이전, 현 총무원사를 동방불교대학의 학교인가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암사는 재적스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강원 활성화를 위해 종단에서 고명한 강사를 초빙하거나 실력있는 강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다.

△불교분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자해지토록 하겠다.

이력: 1947년 生. 67년 남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현재 성주암 회주

비록 1명 참가 했지만 종책 공개토론회 '뜻있다'

태고종 종무원장협의회(회장 대은)가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14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개최한 총무원장 후보예정자 초청 종책토론회는 3명의 후보중 운산스님만이 참가하는 반쪽짜리 토론회가 돼 교계의 실망을 샀다. 현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연스님은 하루전까지만 해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13일 저녁 "후보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 토론회라 실효성이 없고, 선거 후 종단화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참했다.

승가의 선거가 후보자들이 난립하거나 과열되는 것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덕망과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추대되는 형식이 이상적이다. 이번 태고종의 종책토론회가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어 승가의 이미지에는 합당치 않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초미의 관심을 끈 것은 토론회를 계기로 태고종이 침체된 종단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교계의 기대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종책구도를 들어봄으로써 종도들에게 객관적 판단자료를 제공 종단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겠다는 취지가 전폭적인 공감을 샀다.

이런 공감대가 확산됐기에 태고종의 젊은 승가단체인 보현도량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토론회가 좀더 체계적이고 종책지향적인 양상이 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제하고 "입후보 스님들이 연석하여 종단발전에 관한 진지한 자리가 마련되어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화합된 종책안을 의결 어느 후보가 총무원장이 되더라도 종단의 대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교계는 태고종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스스로 찾은 것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울러 23일 선거에서 누가 총무원장으로 선출되든지 다른 후보들이 결과에 승복하며 이번에 제시한 종책이 종단전체의 협조속에 적극적으로 추진돼 태고종이 발전의 도약대로 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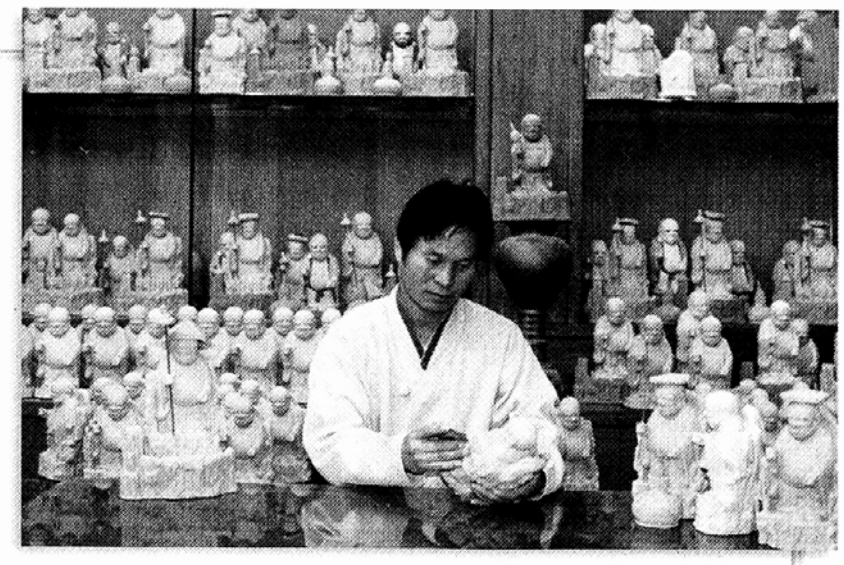
황토달마 무상보시 큰마당 야단법석

불법이 동토에 전래되어 진리의 길을 밝히심이 달마로부터 연유함이며 그런 연고로 시공을 초월하여 미혹한 중생들의 길을 밝히시는 달마의 원력이 오늘날에도 면면히 이 사바세계에 비추이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해 오던 세월속에서 몰록 인연지여진 황토와 달마의 만남이 한개인의 심신을 회복시켰고 주위를 밝혀 나감을 깨달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국난의 시기에 보리달마의 원력을 모아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발길에 빛을드리우기를 지극함으로 발원합니다. 이에 삼천대천세계의 신장으로 화현하실 삼백삼십만불 황토달마 조성의 원을 세우고 제방의 사부대중에게 고하고져 합니다. 이차인연으로 이국토가 더욱 청정 하여지고 무명의 굴레속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 지이다.

- 새천년 동지전(2,000년 12월 21일 오후 10시 24분까지) 먼저 인연 지여지는분들 우선으로 삼천삼백불을 무상 보시 하는 인연을 짚겠습니다.
- 평상시 새벽 3시 – 6시 사이에 직접 오셔서 수많은 달마 가운데 한분을 인연지어 모셔 가시면 됩니다.
- 각 가정에 모시고 개인의 바램과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 할 분들이 모셔갔으면 더욱 의미가 있겠습니다.

불기 2544년 11월 좋은날 토불산방 金魚 常大 김휘철



황토달마 조성, 토불산방 개원 1주년 기념 및 자신과가족, 국난극복을 위한 천일기도 입제

삼백삼십만불 황토달마 조성의 원력을 발원하면서 토불산방 대중은 3년결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에 개인과 집안의 액난을 달마의 위신력으로 극복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가정은 화목하며 나라는 평화롭기를 서원하는 천일 기도 입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다 음

- 기도 입제 : 불기 2544년 12월 24일 오전10시30분 - 장 소 : 토불산방 법당
- 문 의 : 교통이 편리한 부산으로 오십시요.

부산진역건너편 서면쪽 국민은행 옆 옥수봉에서 무상보시 합니다

전화: 051)633-4800, 635-2154